

# “한국사부터 유료영화까지”...軍장병 휴대전화 사용 만족 커

자율·책임 속 스마트폰 사용...일과 뒤 3시간만  
장소 통제엄격...생활관·독서카페 등서만 가능  
“부모와 매일 통화...친구들과 연락주고 받기도”  
“유튜브로 한국사보고 페이스북·인스타그램도”  
장병들 무제한 요금제 선호...절약형 요금제 필요  
“유해 사이트 접속 등 주의줘...처벌 받은 적 없어”

365일 긴장감이 감도는 최전방 GOP(일반 전초) 대대에도 꿀맛 같은 휴식은 있다. 지난 13일 오후 방문한 경기도 연천 육군 제25보병사단 상송대대 병영 생활관에는 일과 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휴식을 하고 있는 장병들을 만날 수 있었다. 25사단은 휴대전화 사용 시범 부대다. 국방부는 오는 4월부터 모든 병사들이 개인 휴대전화를 부대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 부대에 시범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3개월가량 시범 운영이 끝나면 이르면 오는 7월경부터 병사 휴대전화 사용이 완전히 정착될 예정이다. 장병들은 이날 일과가 끝난 뒤 에어컨과 공기 정정기가 설치된 생활관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족·친구들과 연락하거나 삼삼오오 모여앉아 영어 공부를 하기도 했다. 몇몇은 일찍부터 탁자 앞 코트에서 농구를 하며 체력단련을 하고 있었다. 기자가 군 생활하던 시절, 일과가 끝나면 오래된 장기관을 꺼내 장기를 두거나 탁구를 치거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시간은 이제 세상과 소통하고 관심사를 공부하고 개인 여가를 즐기는 시간으로 탈바꿈한 듯 했다. 선임병들만 독점(?)하던 TV도 이제는 문 제물 게 없었다. 몇몇은 이어폰을 꽂고 개인 침상에서 자유롭게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었다. 이날 만난 상송대대 장병들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군 생활의 만족감이 높아졌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특히 휴대전화를 이용해 세상과 소통하면서 힘든 군 생활에 여유를 되찾고, 다양하게 자기계발에 활용하는 모습이 엿보였다. 김신진(22) 상병은 “부모님과 거의 매일 통화한다며, 카카오톡 등 다른 메신저를 쓸 수 있어 많이 편해졌다”며 “일과 시간 이후에 계속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고 주말에도 주고받을 수 있어서 (휴가 때) 약속 잡기도 편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상병은 “한국사에 관심이 많아 유튜브로 강의를 찾아보고 있다”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영화 감상도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장병들은 생활관 가운데 놓인 테이블에 앉아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영어 공부를 함께 하기도 했다. 양시현(22) 일병은 “유튜브에서 대표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미드(미국 드라마)’를 보면서 회화 공부를 하고 있다”며 “지금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운동을 하기도 한다. 전문적인 것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좋다”고 말했다. 양 일병은 사용하는 요금제에 대해서는 “시범 부대로 적용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지 찾아보다가 휴대폰 사용 시간에만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선택해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양 일병 외에도 대부분 장병들이 휴대전



지난 13일 경기 연천군 육군 제 25보병사단 상송대대 대원들이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영상을 보며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

화로 영상을 많이 보는 만큼 무제한 요금제를 선호했다. 대체적으로 단말기 할부금을 제외하면 4~5만원 정도 요금이 나온다고 장병들은 전했다. 국방부는 관계부처, 주요 통신사와 함께 절약형 장병 맞춤 요금제를 출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향후 요금제가 출시되면 1~2만원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일부 장병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청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유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를 보기도 했다. 장병들은 봉급을 고려해 부대원끼리 4인 계정을 묶어 할인 받는 방식으로 최신 영화

나 드라마를 부대에서 본다고 전했다. 다만 휴대 전화 사용 시간과 사용 장소는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었다. 대대원들은 일과가 끝나는 오후 5시30분부터 청소가 시작되는 오후 8시30분까지 3시간 동안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주말에만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사용이 허가됐다. 휴대전화 사용 장소의 경우 생활관과 취사장, 독서카페, 체력단련실로 제한됐으며, 카메라에는 촬영을 할 수 없도록 보안 스티커가 모두 붙어있다. 스티커를 뗄 경우 자국이 남아 위반 여부를 바로 알 수 있다. 특히 전 구역이 보안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 GOP부대 특성상 사용 구역 통제는 엄격

하게 지켜졌다. 스마트폰은 24시간 운용하는 지휘통제실에서만 일괄적으로 보관하고 충전할 수 있게 했다. 부대 관계자는 “장병들에게 중독과 관련된 것, 유해하거나 민감한 사이트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며 “아직까지 처벌받은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침은 상급부대에서 내려온 것을 부대 사정에 따라 운영하고 전체적인 가이드라인 안에서 부대 여건에 따라 운영한다”며 “보안 스티커 등을 붙이고 통제를 하지만 (장병들의) 자율과 책임에 따라서 한다”고 말했다. 뉴스

## 모든 장병에 스마트폰 허용...3만원대 ‘무제한’ 요금제 나온다

4월1일부터 일과 후 휴대전화 전면 허용 맞춰 출시...국방부·과기부, 통신사별 신고 완료

4월1일 현역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 허용을 앞두고 병사들이 저렴하게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가 출시된다.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역 병사를 대상으로 하는 전용 요금제 출시를 위해 통신사별 신고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역 병사들은 현재의 일반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아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3만원대)으로 음성·데이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4월부터 병사들의 일과시간 후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적으로 허용했다. 시범 운영 결과 병사들의 자기개발과 사회와 단절을 최소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4월1일부터 이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특정 시간대 데이터 사용이 집중되고 과도한 사용에 따른 요금 부담이 우려

되면서 병영생활의 특성을 반영한 전용 요금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과기정통부, 각 통신사와 지난 12월부터 협의를 시작해 오는 4월 병영 환경에 맞는 병사 전용 요금제를 출시하기로 했다. SKT·KT·LGU+ 등 통신사는 병사들의 이용가능 시간, 경제적 능력 및 전용 요금제 신설 취지를 고려해 3만원대에 음성·데이

터 기본제공량 소진 후에도 추가 부담 없이 일정한 속도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다. SKT ‘플랜 히어로’ 요금제는 월 3만3000원에 데이터 월 6GB를 제공하고, 주중 4시간 및 주말 데이터(일 2GB+3Mbps)는 무제한 이용 가능하다. KT의 Y군인 요금제와 LGU+의 ‘현역 병사 데이터33’은 월 3만3000원에 일일 데이터 2GB와 함께 초과 데이터에 대해서는 3Mbps를 무제한 제공한다. 특히 장병들이 입대 전에 사용하던 본인 단말기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25% 선택 약정 할인을 받으면 2만원대 이용이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큰사람, 세종텔레콤, 코드모바일, 프리텔레콤, 머천트코리아, 워너스텔, 에넥스텔레콤, 인스코비, 에스원 등 9개 알뜰폰 사업자는 9900원부터 시작하는 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서비스할 예정이다. 병사 전용 요금제에 가입하려면 4월1일부터 통신사 대리점이나 고객센터 등을 통해 현역 병사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구비서류(입영 통지서, 입영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병사 전용 요금제가 출시되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역 장병들의 통신비 부담이 줄고, 사회와의 소통 확대와 자기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